

道 추석 연휴 문화시설 ‘활짝’ 즐길거리 풍성

박물관·미술관·도서관·체육 등
도내 문화시설 295곳 전면 개방
전시·공연·체험 귀성객 맞이
전주·익산·김제 등 축제 다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 추석 연휴에 도내 문화시설 295곳을 개방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관광지, 체육시설이 고루 포함돼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명절에도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개방 시설에서는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지역 곳곳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명절 행사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연휴 동안 문을 여는 시설은 박물관 28곳, 미술관 15곳, 공공도서관 55곳, 주요 관광지 28곳, 작은영화관 9곳, 공공체육시설 142곳 등 모두 295개소다.

도립미술관은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과 체험형 전시 아이스크림 뽕, 기증 소장품 상설전 고귀하고 고귀한 II를 마련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왕실 청화백자와 고려청자 특별전을 동시에 선보이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 도시의 생활사를 재조명하는 기획전을 연다. 남원 김병중미술관은 현대미술 협력전으로 지역의 예술적 감각을 더한다.

완주 책박물관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5개 공공도서관도 문을 연다. 일부는 열



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기술 육성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전북자치도>

람실만 개방된다.

전주 경기전과 남원 광한루원, 김제 벽골제, 고창읍성 등 대표 관광지와 작은영화관 9곳도 정상 운영된다.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빙상경기장, 익산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142곳 역시 가족 단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군 박물관은 추석 당일 휴관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또 문화시설 개방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더하는 행사도 다채롭다. 전주에서는 세시풍속 한마당 ‘낮달

마실’(10.3~10.9)과 전주공예품전시관 ‘한가위 한마당 들썩’, 경기전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이 이어진다.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10.2~10.4)과 전주천년한지관 체험행사도 마련돼 전주의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가 어우러진다.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가수 남진의 전국투어 콘서트(10.4)가 열려 명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익산에서는 마한문화대전(10.3~10.5)과 백제왕궁 소원페스타(10.5)가 진행된다. 김제 지평선축제(10.8~10.12)는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을 마련하고, 부안에서는 추억의 가요 콩쿨대회(10.5)가 열려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추석 직후인 11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훈민정음 창제 579돌을 기념하는 ‘2025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가 열린다. 기념식과 시상, 음악회, 성인문해 전시, 한글 소망쓰기 퍼포먼스가 준비되며, 세계사에 전북비엔날레(9.26~10.26)와 연계한 서예 퍼포먼스와 전시도 진행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혁신허브 출범

산학연·기업 12곳 협력 공식화
291억 투입 복합 기술개발 추진
5년간 LFP·실리콘계 핵심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 발대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TP, KIST 전북분원, 성일하이텍, 한솔케미칼, 전북대, 군산대 등 참여기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 전담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KIST 전북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일하이텍, 한솔케미칼, 나노솔루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유닉, 원투자파터너스 등 12개 기관·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산업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역 기업 지원과 인프라 조성, 투자 유치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진 기술세미나에서는 ▲친환경·고성능 유가금속 회수 및 재활용 기술

동향 ▲실리콘계 고성능 복합음극 제조기술 개발 방향 등이 소개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291억 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간 41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5년간이다.

사업은 ▲LFP(리튬인산철)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 ▲실리콘계 복합음극 고성능화 ▲기술사업화 및 수출형 산업모델 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점유율이 늘어나는 LFP 폐배터리를 친환경 공정을 통해 고순도 리튬을 회수하고, 기존 흑연 음극 대비 에너지밀도가 높은 실리콘계 복합음극소재 개발에 집중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염영선 도의원,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조례 추진

체계적 개방·공유 근거 마련
도민 생활 편의·정책 참여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는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제공과 활용 활성화를 지



염영선 도의원

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방·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신산업 발전을 이끈다. 아울러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까지 가능해져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달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 창출과 고부가가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의원,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법 발의

“사회적 갈등 해결·합의 제도화”
교섭단체 협의로 대화기구 구성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날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법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 제도는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만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공표하며 상임위 심사에서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또 필요시 정부와 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구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전북타임스는 추석 연휴를 맞아 3일부터 13일까지 휴간에 들어간 후 10월 14일 자에 신문을 발행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소통하는 완주군의의회!

주민조례청구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

완주군민 18세 이상으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주군 청구권자 총수는 86,223명이며, 50분의 10이상인 1,725명의 서명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북 한우 개량사업 ‘전국 최고’ 성과 달성

우수한우 750두 배출 최다 실적
유전체 분석 맞춤형 개량 성과
농가 소득 증대·탄소중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한우 개량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평가에서 최고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한우 암소 14만두를 대상으로 유전체 유전능력을 평가해 우수 개체 3천두를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도에서만 750두가 선정돼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축산연구소를 한우 개량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전체 분석과 컨설팅 지원, 진자확인 검사, 혈통등록,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에만 56억 원을 투입했으며, 특히 축산연구소는 전국 시도 연구소 가운데 가장 많은 20두의 우수 암소를 확보해 연구 경쟁력도 입증했다.
도는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

난해부터는 연간 3만두 규모의 유전체 분석을 본격 도입했다. 또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농가 스스로 우수 암소를 선발·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에 뽑힌 우수 암소를 보유한 농가에는 인기가 높은 정액이 우선 배정되고 능력 송아지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는 개량 속도를 높여 사육 효율성을 키우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앞으로 유전체 분석을 활용

한 자발적 개량을 확대해 사육비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성과까지 동시에 확보, ‘탄소중립 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우수 암소와 정액 확보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을 통한 한우 개량정책을 추진해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은 1일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된 창의예술 미래공간 ‘마이누리샘’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전용태 도의원, 진안 ‘마이누리샘’ 개관식 참석

창의예술융합 미래교육 거점
전 의원 “미래 꿈꾸는 터전 기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은 1일 진안군 백운면에 조성된 창의예술 미래공간 ‘마이누리샘’ 개관식에 참석했다.
마이누리샘은 진안교육지원청이 주도해 마련한 창의예술교육 특화 공간으로, 자연학습장에서 창의융합형 미래교육의 거점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번 개관은 농산촌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창의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날 전용태 도의원은 축사에서 “진안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마침내 열렸다”며 “마이

누리샘이 창의성과 예술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이누리샘은 앞으로 △창의예술 체험활동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진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진안형 미래교육 모델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 추석 맞아 주요 축제·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대규모 인파 대비 안전관리 총력
김제·임실·군산 축제 안전 강화
역·대형마트 승강기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축제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시·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제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다중 운집 인파 관리 대책 ▲시설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 기간 중에는 ‘김제 지평선축제(10.8.~10.12.)’, ‘임실 N치즈축제(10.8.~10.12.)’, ‘군산 시간여행축제 & 짬뽕축제(10.9.~10.12.)’가 동시에 열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는 사전점검을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운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명절을 앞두고 철도역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188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승강기 작동상태 등 이상 유무 ▲자재 점검 실태 및 위험요인 관리 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으로, 지적 사항은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토록 지도해 추석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전북도>

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북을 찾는 만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장정철 기자

전북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특별대책회의 열어

도·시군·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11월~3월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폭설·한파 취약구간 선제 관리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 부서, 전주기상지청, 전북경찰청, 육군 제35보병사단, 한국도로공사, 유관기관 및 대한건설협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14개 시군이 참석해 역할과 임무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취약

의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책임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각 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폭설 발생 시 도로 관리 주체별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에 집중하고, 제설 취약 구간과 상습 결빙 구간 재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파손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한파 특별시에는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농축수산물 보호와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해 11월 14일까지 재난 대응 준비를 철저히 마무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한편, 전북도는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와 5단

계 대응체계(상시대비, 초기대응, 비상 1·2·3단계)를 운영해 도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농어촌 출산율 제고 공공산후조리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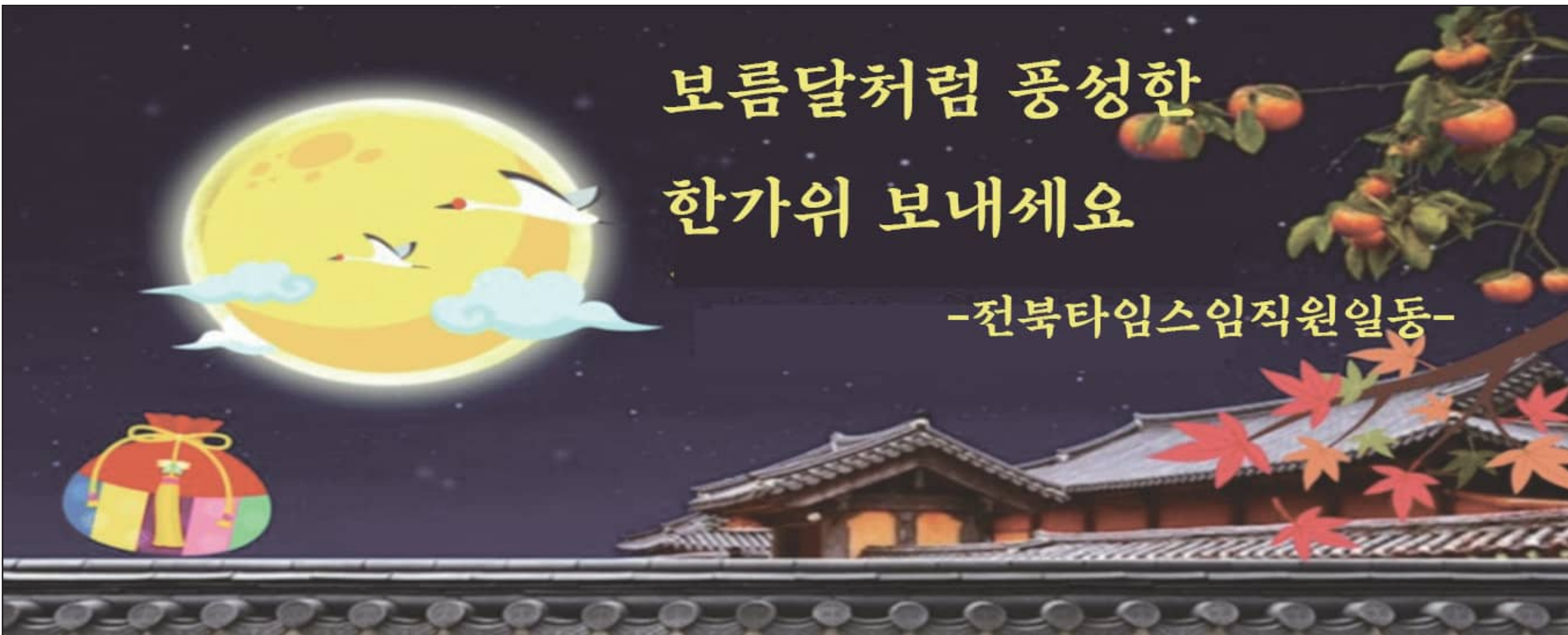
전북 등 12곳 공공산후조리원 전무
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시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을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1곳도 없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466개소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445개소(95.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1개소(4.5%)에 불과했고, 농어촌 지역엔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지역별로 경기도가 150개소(32.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6개소(24.9%)로 단 두 곳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57.1%가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세종은 6개소(1.3%), 광주, 울산, 제주 각각 7개소(1.5%), 충북은 8개소



박희승 의원

(1.7%)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 전남의 경우 5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에는 단 1곳도 없었다.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차이도 크다. 2020년 대비 2024년 가격 상승률이 29.5%에 달했으며, 작년 기준 서울의 평균 이용 가격은 4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78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중기-국민통합촉,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

상생협력 공동 연구 등 업무협약 체결...양극화 해소 협력체계 구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

정부 부처·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및 지속적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제조업 혁신방안 마련 △대·중기 간 기술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치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사회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부가치의 66.3%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중소기업계의 상생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 김제 죽산면 선정

주민 주도형 협력 모델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에 김제시 죽산면이 선정되며 주민공동 학습회를 총 3회 개최하고 마무리했다.

이번 공동학습은 주민 주도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농촌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참여 농촌공간계획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읍·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2개 지구(김제시 죽산면, 군산시 개정면)가 선정됐다.

전북의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시범사업의 제반 비용 및 추진과정 홍보 등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죽산면 주민공동학습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에서 열렸으며, 주민, 마을리더, 청년, 행정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학습회에서는 농촌특화지

구, 주거·정주 환경 개선, 경관·환경보전, 생활서비스 확충, 경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농촌 재생 모델과 국내 성공·실패 사례를 공유했으며, 두 번째 학습회에서는 주민 제안과 주민협정 제도의 의의와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학습했다.

특히 죽산면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이행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 번째 학습회에서는 죽산면 중장기 발전계획 구상을 주제로 주민협의체(분과)별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고, 단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한 소규모 시범사업 모델을 도출해 나갔다.

죽산면은 간담회를 통해 소규모 시범사업 및 주민제안 계획수립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민주도형 농촌공간계획이 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동부신탁, 신탁사회공헌재단에 1천만원 기부

누적 48,860,000원 달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전주동부신탁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햇살이 되고자 하는 신탁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이 주축이 돼 2014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동부신탁(이사장 인옥순)은 신탁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000만원 전달까지 전주동부신탁은 재단누적기부금 48,860,000원을 달성하게 됐다.

전주동부신탁은 2015년부터 꾸준히 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해 오고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풍우경로당(2014년), 효자4동 주민센터(2016년), 선너머 사회복지관(2021년)을 통해 실시해왔으며,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가정의 주거환경개선을 돕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참여 물품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또 아동·청소년의 금융·경제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부바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2022년~2024년에는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신탁 여성대학을 열었다.

여성 조합원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원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해 조합의 인적네트워크를 살리며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신탁중앙회 강연수 전북지역본부장과 전주동부신탁 인옥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여했다.

인옥순 이사장은 “신탁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성을 위한 체계적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신탁 여성대학을 열었다.

이러 “전주동부신탁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중기중앙회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20인 선정

1천5백여명 지원...광고 출연-콘텐츠 제작 등 경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달 30일 MBC 골든마우스홀(상암동)에서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최종결선 무대를 개최하고 총 20인을 선정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소상공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으로만 진행됐으며, 1500여명 지원자가 몰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심사를 위해 광고·미디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미지 적합성, 모델 적격성, 호감도 등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1차(서류심사) △2차(카메라 테스트) △3차(최종결선)에 걸쳐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 음식점, 사진관, 서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유튜버, 가수·배우 지방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했다.

사업 운영을 하면서 경험한 노란우산 혜택을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내는가 하면 콘트라베이스, 가야금, 색소폰 등 악기연주와 댄스, 마술, 마임, 난타 등 각고 닦은 장기를 선보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1명) △금상(2명) △은상(3명) △동상(4명) △장려상(10명) 등 총 20명에게 트로피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 가운데 이지선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에서 9년째 동네 책방을 운영 중인 이지선씨는 “노란우산이란 늘 든든한 힘이 돼주는 친정 아빠와 같은 존재”라며, “책방 홍보를 위해 도전한 대회에서 대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져 꿈만 같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노란우산 홍보모델은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2026년 노란우산 TV광고 촬영 △유튜브 등 디지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0일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2026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최종결선 무대를 개최하고 총 20인을 선정했다.

콘텐츠 제작 △행사·공연 등 다양한 노란우산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오기용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사업장 운영으로 바쁜 사장님들이 있고 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매년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노란우산 TV광고 출연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경험을 즐겁게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0일 삼성휴먼빌을 찾아 노사합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헌활동은 사회소외계층 세대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등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웃사랑과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 익산 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삼성휴먼빌에 전달했다.

이규택 원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태고자 한다”며 “아울러 이번 나눔이 불가 상승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LX, 몽골 공무원 대상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성료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한국과 몽골 주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달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주소법, 주소연계 시스템 이해 등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꾸며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8월 몽골 공무원 1차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에 이어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한국 주소체계 발전 과정 △도모명주소 도입의 배경과 성과 △주소데이터 구축·관리 체계 △주소 기반 산업 응용 서비스 등을 심층적으로 학습했다.

또한 현장견학을 통해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식과 데이터관리 체계를 직접 체험하고 실습을 경험함으로써 실무 대응력을 키웠다.

이어 LX공사가 주관한 ‘2025 K-Geo Festa’와 ‘2025 주소 혁신 국제 콘퍼런스’에도 참석해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과 결합한 주소·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상을 접했다.

몽골 토지행정청 푸름터르지 바얀투멘 지석과장은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알게된 K-주소의 표준화된 주소체계와 첨단 데이터 관리 방식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 “몽골 주소체계 개편과 행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X공사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이번 몽골 공무원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주소체계 운영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몽골 주소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지원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12,410원 결정

3.3% 인상·생활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4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396원(3.3%)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약 259만 3,690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제도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8년 첫 적용 당시 8,600원에서 시작해 매년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인상을 따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지난 9월 2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쳤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인상안을 확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은 2026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민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물가상승과 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대행,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고발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 명예훼손죄로 학부모 2명 고발 “엄중히 대처할 것”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교원을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

두 학부모는 앞서 전주덕진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입건 종결처리됐고, 전주시청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교사 괴롭히기를 지속해왔다.

학부모 A, B의 교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10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무·업무 방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사안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재됐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 학부모 A와 B에 대해 각각 심리치료 15시간과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조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학부모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결정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와 B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권침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은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내년 공립 중등교사 326명 선발

13~17일 온라인교직원 채용시스템 통해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내년 공립학교 선발인원은 △중등학교교사 282명(장애 27명 포함) △보건

교사 11명(장애 1명 포함) △영양교사 10명(장애 1명 포함) △사서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9명(장애 1명 포함) △특수중등교사 11명(장애 1명 포함) 총 326명(장애 31명 포함)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중등학교교사는 2명 증가했지만, 보건교사 21명, 영양교사 4명, 사서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12명, 특수중등교사 8명이 줄어 총 46명 감소했다.

사립학교는 전년도보다 1개 법인, 15

명이 증가한 50개 법인, 222명을 제1차 시험에 한해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11월 22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12월 26일 오전 10시 발표 예정이다.

이어 제2차 실기평가는 2026년 1월 14일, 수업실연은 1월 20일, 심층면접은

1월 21일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2026년 2월 5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올해 임용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자들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접수 절차와 시험 일정,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달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수-학습과정안 등 헌법교육 자료 제작

11월 초 제작 완료 학교 보급·수업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

단을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헌법교육 자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초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하는 헌법교육 자료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해 교사용 자료는 △교수-학습과정안 △수업 PPT △시나리오 3종, 학생용은 학습지(활동지) 1종으로 제작된다.

개발이 완료된 자료는 도내 모든 학교

에 보급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교육도 진행한다.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오는 10~12월까지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헌법교육 학습자료는 단순히 헌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하고 있다”며 “삶과 연결된 실천적 교육, 체험형 활동 중심의 살아있는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스포츠클럽 태권도팀, 금5·은4·동7 획득

비전대 총장배 태권도 대회서 성과 거둬

제20회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지난달 27~28일 비전대학교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주스포츠클럽 태권도팀은 김동현 코치가 지도한 품새에 16명, 문형호 코치가 지도한 겨루기에 13명 출전해 금5 은4 동7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겨루기부문 여중부 L미들급 1위에 문지담을 비롯해 남중부 핀급 임창현 2위, 플라이급 김윤우 3위, L웰타급 차성환 3위의 입상 성적을 거뒀다.

품새 개인전에서는 고등부 1학년 전주상업정보고 남궁보민은 지난 태권원배에 이어 출전대회 2연속 우승을 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 전주스포츠클럽은 복식품새 초등부 1위 중등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문지담 선수(효문중 3년)는 2025년도에 출전한 전국대회 국방

부장관기, 협회장기, 한국어성연맹 회장배, 전국소년체전, 한국중고연맹기, 3.15기념전국태권도대회, 2.28 민주화운동기념 중고태권도대회, 제주평화기대회 중등부 L-미들급에서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 우승을 하며 국가대표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전주스포츠클럽 태권도팀은 품새와 겨루기에서 올해 전국소년체전 1위 등 많은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내는 등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태권도를 수련하는 청소년들의 꿈이 열려가는 과정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전주스포츠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품새부문 개인전(1부리그) △1위-남궁보민(고1), 장우진(중1), 유지오(초5) △2위-장현아(초5) △3위-박은별(고2), 김하율(중2), 최세리(중2), 윤설아(초5)

▲복식전 △초등부-1위(유지오, 장현아) △중등부-1위(장우진, 최세리)

/정정태 기자

행복나눔자원봉사단, 노송동 어르신 식사 대접

아코디언, 색소폰 연주가 곁들여진 ‘행복나눔자원봉사단’ 점심식사 대접이 노송동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4층에서 펼쳐졌다.

9월 30일 행복나눔자원봉사단(단장 홍미연)은 노송동 지역 어르신 약 60여명 위한 점심식사 대접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식사 전 문화활동으로 아코디언 동호회 및 색소폰 동호회원들의 연주가 이어지며 찾은 모든 이들의 기분을 띄웠다.

지역민 위한 점심식사는 봉사단원들과 함께 양지재가복지센터, 동지재가복지

센터 책임자들이 찾아와 인손을 도왔다.

행복 나눔 봉사단은 노송동에 터를 잡고 지난 9년간 어르신 식사 대접, 이웃 어르신 함께 말벗하기 동참 등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이 자리에는 도의회 이병도 의원, 시의회 김윤철 의원, 최용철 의원이 깜짝 방문해 지역어르신들의 소리를 귀담으며 덕담을 나눴다.

행복나눔봉사단 홍미연 단장은 “추석 명절 전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으로 조촐하게 준비했지만 힐링의 시간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가을 축제 한마당

피어나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2025. 10. 16 ~ 10. 19 |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2025 남원 국가유산 이소행

2025. 10. 16 ~ 10. 19 | 남원 광한루원 일원

제33회 흥부제 Heungbu Festival

2025. 10. 17 ~ 10. 19 | 남원 사랑의광장 일원

제56회 익산 마한문화대전 시민 맞춤형 문화 행사 마련

익산시가 ‘한(韓)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기념하고,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

올해로 56회를 맞는 익산마한문화대전은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 K-컬처의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며, 1969년 시작된 마한민속제전을 계승한 익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다.

행사 첫날인 3일 오전 11시에는 마한시대 제정일치 문화의 핵심이었던 ‘마한 소도제’가 전통 제천의식 형식으로 재현된다.

문화 체험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마한인의 의복과 문신, 농경 민속을 비롯해 베를 짜기, 불 피우기, 고기 굽기, 부뚜막 시연, 활쏘기 등 고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20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대 행사도 다채롭다. 둘째 날인 4일 오후 4시에는 역사강사 최태성의 렉터콘서트가 열리고, 익산 무형유산 공연, 마한합창대회, 마한댄스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는 영등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음악회’가 개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백제왕궁박물관에서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전시회도 열린다. 전시회는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보존 활동, 문화관광 성과를 조명하며 익산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어르신 의료·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본격화

군산시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하나로 ‘건강돌봄반찬 지원사업’과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건강돌봄 반찬 지원사업’은 기동이 불편해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반찬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노인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중 반찬 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고립된 1인 가구나 병원 돌봄이 필요한 시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매니저가 동행해 병원 이용의 불편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추석 연휴 서남권 추모공원 정상운영 현장대비 총력

정읍시가 추석 연휴 기간 성묘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하며 현장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봉안당과 자연장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화장시설은 추석 당일에만 운영하지 않는다.

추모공원은 연휴를 앞두고 자연장지와 주변 일대의 발초를 마무리하고,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방문객 맞이를 위한 세단장을 완료했다. 특히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사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방문객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납영회 노인장애인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성묘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차와 교통, 환경정비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성묘를 마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국가유산청 공모 8건 선정

국가유산 활용 분야 전국 최고 수준 입증 총사업비 34억 확보

익산이 국가유산 활용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시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한 2026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서 총 9건을 신청해 이중 8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전년보다 22억 원 많은 총 3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년 대비 282%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단순한 선정 건수뿐 아니라 사업별 예산 규모 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세계유산 도시 익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사업은 다시 돌아

온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다. 이 사업은 3년 연속 공모 제한으로 인해 2025년 한 해 휴식년을 보내고 다시 선정됐다. 내년에도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는 미륵사지를 대표하는 야간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제왕궁(왕궁리 유적)을 무대로 펼쳐지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은 올해까지 8년 연속 개최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에서도 총사업비 9억 3,500만 원을 확보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야간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익산 야행은 2019년, 2023년, 2024년에 걸쳐 국가유산청 ‘전국 우수 야행’에 선정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눈에 띈다. 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향교서원 활용사업’과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사업’이 전통문화 기반 확대와 세대 간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전국 일자리대상 첫 ‘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고용률 상승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인구 감소와 열악한 고용 환경이라는 위기 속에서 정읍시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빛을 발했다. 시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으로 3년 연속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읍시는 지난 9월 30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 상은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한 해 일자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권위의 시상

이다.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일자리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읍시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2.4%로 전년 대비 0.6%p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69.4%)보다 3%p 높은 수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세부 전략

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정량적 성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요 성공 전략으로는 △전북연구개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3대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신종년·노년을 아우르는 생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등 5가지 세부 전략이 꼽혔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산업 발굴로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이차전지 산업 신성장 거점 ‘도약’

전구체·양극재 초격차 기술 확보 기반 구축

군산시가 국가전략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 및 전후방 기업들의 기술력, 생산성·품질과 매출향상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선순환 성장 축진을 도모해 군산시를 국내 이차전지 핵심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사업은 24년 5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6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연구시설 용지에 지상 2층 규모 센터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구체·양극재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정밀 분석·평가 장비 20종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센터 착공과



함께 핵심 장비 도입을 전격 추진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대학과 함께 실시간 고도화 분석을 위한 인프라 및 고도분석시험 성능평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 기술지원 지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산시와 전북자치도는 시에 소재한 이차전지 기업 및 전후방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선

도기술, 소재·광물, 사용후배터리 분야

등 다양한 기술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전후방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이차전지 분야 기술변화 속도에 부응하는 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역량 확보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명절 연휴 가족 화합 프로그램 ‘풍성’

전통 체험·역사 교육 등 세대 간 소통 목표

온 가족이 소망을 나누는 추석 명절, 익산시가 준비한 특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시민과 방문객을 기다린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통 체험과 역사·문화 체험, 야외 활동을 아우르는 이번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통과 가족 화합을 목표로 기획됐다.

백제문화체험관에서는 3일부터 9일까지 ‘백제마을 한가위 잔치’가 열린다. 차를 마시며 전통 다례를 배우는 ‘백제의 차향’, ‘백제 놀이터’를 통해 웃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는 ‘추석연휴, 우리가족 쓰리고로 즐기자, 기록하고(Go)’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GO에서는 가족이 함께 여서를 작성해 기록 우체통에 넣으면 새해 선물로 제공된다. 연휴 막바지인 8일에는 익산 교도 소세트장에서 전통놀이와 가족무대향전이 열린다. 전통놀이로는 가위팔방,

막지치기, 투호던지기 등 8종이 마련된다. 가족팀 대항전은 단체줄넘기와 줄다리기 등 2회차로 진행된다.

추석 당일인 6일 오후 3시에는 함라 한옥체험단지에서 퓨전 마당구 ‘변사또 애인찾기’가 펼쳐진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연휴 프로그램은 가족, 친지와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성과 ‘전국적 인정’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활용 △홍보·확산 노력 △우수사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한 종합평

가단의 엄정한 심사 결과 정읍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광역 1개소·시 2개소·군 2개소·구 2개소 등 단 7곳만 선정된 우수기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전 공직자가 시민 중심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정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 중심의 적극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전략 논의

실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군산시가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미래전략 및 관리운영 실행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1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 군산 실현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군산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관리운영 실행계획 제시 등이 논의됐다.

그간 군산은 무엇보다 연간 3만 톤 이상의 고품질 물감이 생산됨에도 가공공장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전량 유통돼 산업기반을 상실해왔다.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2019년 새만금정 부지확보협약 체결 △2022년 해수부 스마트단지 공모 선정(국비 등 380억 원 확보) △해수(海水)인·배수관 설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24.10월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 수상 △지자체의 적극 투자 및 시설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샌더는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약 380억 원을 확보해 올 8~9월경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일부 시설 가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청 펜싱팀, 전국체전 금빛 석권

익산시청 펜싱팀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하는 금빛 성과를 거뒀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청 펜싱팀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사전경기로 치러진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대회 첫날인 25일 권영준 선수가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대전대학교 김정범 선수를 15-12로 꺾고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날 열린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국가대표 최지영 선수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30일 치러진 남자 에페 단체전

에서 말형 권영준과 국가대표 양윤진을 비롯해 정병찬, 김종준 선수가 호흡을 맞춰 결승에서 한국체육대학교를 45-24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특히 권영준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2년 연속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남자 에페팀은 지난해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켜내며, 전국 최강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최고의 무대에서 당당히 익산을 대표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추석 대비 민생안정 대책 점검

정읍시가 지난달 30일 구절초 회의실에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연내 중점사업 추진 상황과 추석맞이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안과 민생 대책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등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이 보고됐다. 이학수 시장은 “부서별 중점사업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력과 철저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3·9일 보건·교통·경제 종합 지원 소비쿠폰·공익수당 집중 지급 물가안정 관리·주차장 무료 개방

남원시는 2025년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7일간의 긴 명절인 만큼 시에서는 귀성객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외로, 교통 대책, 도로복구 등 7개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예방활동 및 사건발생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휴 중에 발생한 한자들의 응급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 의료기관(남원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당직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이 지정 운영된다.

경제분야에서는 소비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농민 공익수당을 명절 전 집중 지급한다. 또한 은누리 상품권 구매 장려와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15% 인상 운영한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수산·축산물 20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간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남원시는 늘어나는 명절기간으로 어느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귀성객과 귀경객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병목구간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 현장단속반도 운영한다. 또한 연휴 기간동안 유료 공영주차장을 5곳을 무료 개방·운영하여 귀성객 및 시

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명절 손님맞이에 걸맞은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위해 추석 전 환경정비를 추진하며, 연휴 동안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원 처리반과 특별대응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시민의 온정은 멈추지 않는다. 사회단체와 공직자가 앞장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문과 봉사활동을 펼치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추석 뒤에는 ‘2025 세계 드론대전, 제33회 흥부제’ 등 풍성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니, 고향을 찾은 분들이 남원의 매력을 널리 알려 주시고, 10월 3대 축제도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앱 ‘떡깨비’ 출시

‘착한 수수료’ 민관협력 운영 정식 개시 기념 할인쿠폰 지급

완주군이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1일 정식 개시했다. 군은 지난 7월 8일 민관 협력형으로 떡깨비 운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개시에 이르렀다. ‘떡깨비’는 현재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으로 △주문 증가수수료 1.5%(부가세 별도) △입점비·광고비 무료 △지역화폐 연계 등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식 개시를 기념해 신규 이용 고객 대상 3,000원 할인 쿠폰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2만 원 이상 2회 즉시

결제 시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하다(지역사랑상품권 제외). 이벤트 참여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떡깨비’를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배달 주문을 하면 된다. 가맹점 신청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점주가 ‘떡깨비 사장님’ 사이트(boss.mukkebi.com)에서 입점 신청하거나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완주군은 앞으로 ‘떡깨비’를 완주사랑상품권, 지역 온라인 플랫폼 ‘완주몰’과 연계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떡깨비는 민간



완주군이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1일 정식 개시했다. <사진=완주군>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형 플랫폼”이라며 “건전한 수수료 문화를 선도하는 공공배달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쌍치 파크골프장 개장…기념대회로 활력 더해

18홀 코스·체계적 부대시설 갖춰 1일 개장식 이어 군수배 대회 개최

순창군 쌍치 파크골프장이 1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엔 개장한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8억 4,300만 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18홀 규모의 코스를 비롯해 관리실, 스크린 골프장, 실내 연습장 등 체계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다.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장소가 될 전망이다. 개장식은 1일 쌍치면 금평리(금정체육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서진회의 의장 및 의원 등 주요 내빈과 쌍치면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파크골프협회 회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내빈 소개, 국민



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기념촬영 등으로 마무리됐다. 개장식에 이어, 새로운 파크골프장의 개장을 기념하는 제1회 순창군수배 파크골프대회가 열렸다. 28개팀 350여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선진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목표 아래 결실을 맺게 되어 뜻 깊다”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상수도 비상사고 대응 합동 모의훈련

도·14개 시군·전북환경청 등 참여 섬진강 정수 이상 상황 가정 진행

순창군은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적성정수장에서 ‘2025년 상수도 비상사고 위기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순창군을 비롯해 전북 지방환경청, 전북도청, 수자원공사,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 전북 14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합동훈련은 지난 2020년 전북지방환

경청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체결한 ‘지방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집중호우로 섬진강 취수 시설에 타도 유발 물질이 유입돼 적성정수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수용가까지 공급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에, 상하수도과는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근거해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300세대 이상 피해가 예상될 경우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필요 시 유관기

관의 기술·인력·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점검했다. 이외에도, △비상대책본부 구성 △사고 상황 전파 △비상 연계관로를 통한 응수 공급 △정수 처리 공정 복구 및 주민 지원 △결과 보고 등 사고 수습 전과정의 대응 능력이 종합적으로 검증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새 랜드마크’ 만경강 물고기철길 가공식

보행로·스카이워크 등 조성 관광자원 연계 복합 거점 마련

완주군이 만경강의 옛 철교 자리에 새로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세운다. 1일 완주군은 비비정예술열차광장에서 ‘만경강 물고기철길 조성사업’ 가공식을 갖고 지역 대표 관광거점 조성을 향한 첫 삼을 떼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관광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만경강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추진되며,

총연장 405m의 보행로, 200m 스카이워크 및 전망침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비비정예술열차, 구만경강철교, 삼례책마루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문화·관광 복합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늘 가공식을 계기로 군민과 함께 성공적인 완공을 이루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경강 물고기철길은 전 북 14개 시군을 잇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순창시장 일원서 300여명 참여 공공카드 무료대여 개시 ‘호응’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의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맞이 시장장보기 행사를 1일 순창시장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지역 농특산물 등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행사와 함께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장바구니 나눔 행사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군민 편의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공카드 무료 대여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법원 판결 근거로 문화원 정상화 추진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 가동 하반기 사업 본격화

완주군이 장기간 표류해 온 완주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법원 판결 취지와 문화원 정관에 근거해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고, 하반기 주요 문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완주지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이 군청 인근 문화복지지구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완주문화원은 고산면 기존 청사의 무상사용 기간이 2024년 10월 5일자로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9월 3일, 완주군이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문화예술단체 이전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갱신 여부는 지자체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며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7월 7일 명도판결 가처분에서도 강제집행이 인용된 바 있으며, 현재 상대 측의 불복으로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은 “확정 절차를 존중하되,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 자산의 합리적 활용과 문화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장이 행사소추 중인 사유로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지난 7월 21일과 9월 29일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고, 하반기 주요 이사회를 열어 본인의 지위 복원 안전에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정관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완주군은 “문화원의 운영을 반드시 정관과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군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하반기 선양사업 등 주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문화원 이전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용진읍·삼례읍 삼봉지구 등 인구 증가 지역의 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읍·면별 문화와 역사 발굴·재조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고산면 건물은 노인문화교류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적 문화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가 제19회 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42개 메달 성과를 거뒀다. <사진=남원시>

남원시, 전북장애인체전 42개 메달 획득 ‘쾌거’

남원시가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 등 총 4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선발된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15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쳤으며, 남원시는 족구, 태권도, 볼링, 좌식배구 등 13개 종목에 선수 130명을 포함한 임직원·보호자 등 총 168명이 참가했다. 특히 태권도·족구·좌식배구·골볼·게이트볼·볼링·육상·론볼 등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족구, 태권도, 볼링, 좌식배구 등 13개 종목에 선수 130명을 포함한 임직원·보호자 등 총 168명이 참가했다. 특히 태권도·족구·좌식배구·골볼·게이트볼·볼링·육상·론볼 등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완주군에 1만 권 도서 기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1일 완주군을 찾아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지식문화 접근성 강화를 위해 2억 원 상당의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했다. 이번엔 기증되는 도서는 아동·청소년 도서부터 인문,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군은 기증받은 도서를 군민 열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일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은 “이번 도서 기증이 군민들의 지적·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독서문화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서관이 지식과 소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 밝혔다. 이번 기증 도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우선 배치되는 동시에,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고운삼봉도서관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삼봉지구에 조성되는 고운삼봉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69㎡ 규모로 자료실, 공동육아나눔터, 민원센터, 청소년 존,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문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일본 관광시장 공략 관광자원·체험 콘텐츠 알려

남원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Aichi Sky Expo에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2025’에 참가해 남원의 대표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본관광진흥협회, 일본정부관광국 등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관광박람회로, 전 세계 70여 개국 1,10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으며,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남원시는 전북도와 함께 마련한 공동 홍보관에서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영화 촬영지, 춘향제 등 대표 축제, 국악·한옥체험, 남원 미식(추어탕, 흑돼지) 등 K-컬처와 전통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원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특히 25일과 26일 진행된 B2B 상담회에서는 일본 현지 여행업체와 총 15개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남원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논의했다. 27일과 28일 2일간의 일반 소비자 대상 부스 운영에서는 SNS 팔로우 이벤트와 현장 상담을 통해 많은 방문객이 몰렸으며, 남원의 한옥·국악체험, 드라마 촬영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원시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일본 관광시장에서 남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전북도와의 공동 홍보를 통해 관광상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추석 제수용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모두 ‘적합’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품목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사과, 배, 밤, 도라지 등 총 18품목(채소류 10종, 과일류 10종, 버섯류 3종, 견과류 1종)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3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6품목 중 15품목에서는 잔류농약이 불검출되었으며, 11품목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농산물은 껍질 벗기기, 씻기, 데치기 등의 조리 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모두 제거 또는 분해되므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주)원진알미늄, 장수군에 추석맞이 라면 100박스 기탁

장수군은 주식회사 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이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총 40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라면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군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군은 이웃 간 정을 나누는 명절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배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나눔 실천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태연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주)솔라파크에너지 등 진안군에 추석맞이 나눔 실천 이어져

진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민간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주)솔라파크에너지는 135만 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며 명절을 맞은 취약계층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했다. 또한 한우협회 진안군지부에서는 2,185천 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지원해 이웃들이 따뜻한 밥상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진안군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해주시는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솔라파크에너지와 한우협회 진안군지부는 수년동안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기업·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 추석맞이 한우 127kg 기탁

490만원 상당 한우 전달

(사)전국한우협회 군산시지부(지부장 배일호)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게 한우 127kg(49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된 한우는 군산시 푸드뱅크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전달되어, 취약계층의 명절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배일호 지부장

은 “한우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한우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우협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해도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탁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시 산업단지協, 노동자 새벽 출근길에 아침 식사 배부

김밥·컵밥 등 직접 전달

전주시 산업단지협의회(회장 이운영)가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기 위해 1일 아침 출근길에 아침 식사를 배부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주)나온씨티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김밥과 컵밥 등 간편식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노동자들은 맛밖의 아침 한 끼 선물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매주 수요일엔 수요튼튼 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주시 산업단지협의회는 지난 8월 1000만 원을 기부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이번 현장 봉사 참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더욱 확산시켰다.

협의회는 기부금은 전주 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매주 수요일 아침 김밥과 컵밥, 샐러드 등 간편식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수요튼튼 밥상 사업을 통해 아침 결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노영열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장, 백미 기탁

백미 30포 3백만원 상당 기탁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노영열 회장이 지난달 30일 고창군 성내면주민행복센터를 찾아 백미 10kg 3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따뜻한 위로를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노영열 지회장은 평소에도 다양

한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함께 하는 이웃돌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힘을 보탰다

이남례 성내면장은 “지역사회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노영열 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받은 쌀은 도움이 절실한 가구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를 해소하고 있다.



장수중동마을 김병길 이장, 사과즙 기탁

장수군은 중동마을 김병길 이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정을 지원해 달라며 300만 원 상당의 사과즙을 장수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장은 올 한 해 두 번째로 사과즙을 기탁한 것으로, 직접 수확한 사과를 정성껏 가공해 마련한 신선한 사과즙에 이웃과 나눔을 이어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았다.

그는 “풍성한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며 “직접 수확한 사과로 만든 사과즙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탁된 사과즙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부안수협, 농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수협협동조합(조합장 송광복)은 지난달 30일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사랑의 한열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부안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안수협은 지역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게 됐다.

기탁식에 참여한 송광복 조합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돕는 것 또한 조합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이번 기탁이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키우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부안수협의 장학금 기탁은 지역 청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경찰서, 추석 명절 맞이 북한이탈주민에 위문품 전달

완주경찰서(서장 박종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29일, 군의회 김재현 부의장, 이순덕 의원 및 안보지원협의회(회장 김용현), (주)정성케미칼(대표 김용현), 삼례·봉동 로타리클럽(삼례회장 김태형, 봉동회장 장정구), 봉동로타리클럽(회장 장정구)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탈북민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안보지원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로하며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고자 위문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김 모(여)씨는 “명절이 되면 더욱더 고향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어 참 고맙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주요국들 정부 부채에 떨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1)

홍종학
전 중소벤처부 장관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격화된 끝에 9월 8일 의회 신임투표에서 패배,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 그 배경에는 GDP 대비 114%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부채와 유로존 내 최악의 재정 적자(2024년 기준 적자율 5.8%)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출 동결·공휴일 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책을 내놴으나, 대규모 시위와 정치권 반발로 결국 예산안 통과가 좌절됐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이미 EU가 정한 적자율 한계(GDP 대비 3%)를 크게 상회해, 유럽연합 집행위가 무리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절차를 개시했고, 신용평가사 피치와 S&P·무디스가 최근 연달아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10년 만기 국제금리는 3.5%까지 뛰었다.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대 갈등, 대규모 시위, 정부 불신임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극좌·극우 정당 모두 긴축 반대로 결집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2년 만에 5번째 총리 임명이라는 기록적인 정치 불안정에 직면한 상황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2년 전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는 2022년 9월 취임 이후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보조금 확대를 골자로 한 ‘미니 예산안’을 발표했다. 약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에 대해 재정적 충당 계획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영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신용도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에 급격히 번졌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갑작스런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영국 국제금리가 급등했다. 영란은행이 국채를 긴급 매입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여파는 수습되지 않았고, 정치권 내에서도 강한 반발과 연쇄 사임이 이어졌다. 트러스 총리는 결국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취임 44일 만에 전격 사임했다.

영국은 여전히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금리를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최근 10년 만기 국제금리는 4.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보다 더 중요한 세계 경제의 이슈는 정부 부채이다. 주요 국가들의 총리를 갈아 치울만큼 폭발력이 강한 경제 문제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높은 정부 부채 비율과 높은 재정 적자 비율이라는 치명적인 조합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연초마다 정부 부채 상한선을 놓고 여야가 오랫동안 대치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이더라도 막대

한 재정 적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이렇듯 주요 국가들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단연 심각한 나라는 일본으로, 무려 200%를 넘어섰다. 영국 역시 100% 근방에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1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 정부 부채 비율도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 비율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재정 적자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이 GDP 대비 5%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다. 앞서 정부 부채가 높다고 언급된 나라들이 재정 적자 또한 높으니, 정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일본은 이미 부채가 너무 높아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막대한 정부 부채와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정부의 경제 정책 제량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우선,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방, 사회보장 등 필수 재정을 늘리기가 어려워

진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 대비 이자 비용이 세금으로 걷은 돈의 8%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정부는 재정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한 팔이 묶인 운동선수와 같은 처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정책이라는 다른 한 팔마저 묶여 정부는 이자율을 마음대로 낮추지 못한다.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국 채권을 사줄 투자자가 없을 경우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서서히 팔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영국 10년물 국제금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양팔이 모두 묶인 선진국 경제 정책 당국은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보름달처럼 마음이 짝 찬 넉넉한 한가위 되길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었다. 연휴 첫날 새벽부터 고속도로는 차량 행렬로 붐비고,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공항에는 선물 보따리를 든 귀성객들이 북적거린다. 짝 막힌 도로 사정이나 치솟은 물가 걱정이 여전하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조상 묘를 찾아 감사의 절을 올리며 가족 친지 등과 함께하는 기대감이 그 모든 근심을 덮는다. 무엇보다 흠어져 살아온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추석이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추석은 본래 한 해의 수확에 감사드리 는 농경사회의 명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농촌은 마을과 마을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도시가 중심이 된 사회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농경사회가 남겼던 전통적인 추석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도시에서 메마른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고향의 따뜻한 품에 안겨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 삶의 전선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추석 명절이다. 부모 세대에겐 자녀에게 혈연으로 얹힌 뿌리를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교육의 기회이고, 모든 세대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번 연휴가 더욱 값진 이유는 단순히 긴 휴식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갈등과 극우세력 준동, 경제적 불안, 세대와 지역 간 갈등으로 마음이 자주 갈라져 왔다. 12.3 내란사태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 불안감을 더한다. 이런 때일수록 한 지붕 아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무게를 나누며, 함께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

이 필요하다.

햇곡식으로 차려진 추석의 따뜻한 밥상머리 대화 속에서 우리는 갈등보다는 이해를, 불신보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특히 도농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 얽어진 현실에서, 추석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듬는 시간이기도 하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도시는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지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명절만큼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마음을 맞대는 자리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끈을 이어주는 힘이다.

우리가 추석마다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높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공동체의 회복력이 다시 살아난다.

모처럼 찾아온 긴 추석 연휴 동안 일상의 각박함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겨보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이번 추석이 단순히 고향을 오가는 의례적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둥근 한가위 달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 갈라진 틈을 메우고 새로운 희망을 밝히는 연휴가 되기를 마음을 모아 기대해 본다.

문화재열전



정혜사석조보살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석조, 보살상

-지정일 - 2002년 11월 15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정읍시 죽림2길 28 (연지동)

JBT전북타임스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추석달을 보며 / 문 정 희

그대 안에는
아무래도 옛날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에 띄놓았던 정한수 숙의
그 맑은 신이 살고 있나 보다.
지난 여름 모진 홍수와
지난 봄의 온갖 가시덤불 속에서도
술 향내 푸르게 배인 송편으로
떠올랐구나.
사발마다 가득히 채운 향기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던 말씀
참으로 옥양목같이 희고 맑은
우리들의 살결로 살아났구나.
모든 산맥이 조용히 힘줄을 세우는
오늘은 한가웠날.
헤어져 그리운 얼굴들 곁으로
가을처럼 곱게 다가서고 싶다.
가혹한 짐승의 소리로

녹슨 양철처럼 구겨 버린
북쪽의 달, 남쪽의 달
이제는 제발
크고 둥근 하나로 띄워 놓고
나의 추석달은
백동전같이 눈부신 이마를 번쩍이며
밤 깊도록 그리운 얘기를 나누고 싶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

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
상했다. 시집으로 ‘문정의 시집’, ‘새때’, ‘절레’ 등

을 출간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
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전북의 변화, 전북 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0

10월, 일큰한 짬뽕 도시 군산으로 떠나는 미식여행



2025 군산 짬뽕페스티벌 10월 9일~12일 개최

군산시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군산 백년광장 일원에서 '2025 군산 짬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군산은 '우리나라 짬뽕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짬뽕은 1960년대 화교들에 의해 돼지고기 육수로 국물을 낸 '조마면'에 항구도시 군산 특유의 신선한 해산물과 고춧가루가 더해져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이러한 음식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매년 '짬뽕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단순한 지역 대표 음식 소개가 아닌, 음식·공연·체험이 어우러진 미식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는 한층 더 강화된 짬뽕 콘텐츠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고기짬뽕, 해물짬뽕, 이색짬뽕 등 다양한 테마형 먹거리존을 통해 짬뽕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모든 중식 판매 부스에서는 짬뽕과 짜장면을 0.5인분 단위로 판매해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여러 메뉴를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내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프리미엄 프로그램 '짬뽕레스토랑'을 운영한다. 짬뽕 한 그릇과 함께 감성적인 재즈 공연, 레크리에이션형 즐길거리가 더해져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낮에는 지역예술인들의 참여하는 마술쇼와 서커스 공연이 열려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축제의 흥을 더한다.

축제기간 내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첨가방 속 그릇의 물을 흘리지 않고 옮기는 게임형 프로그램 '배달! 짬뽕의 명수' ▲대형 짬뽕그릇에 소원 불꽃공을 던져 넣는 '보글 보글 짬뽕탕' ▲미션 수행을 통해 리워드를 제공받는 'K-관광길을 이겨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덕에 축제의 재미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장 인근에는 짬뽕특화거리가 있어 관광객들이 축제와 함께 미식관광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짬뽕특화거리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빈헤럴'을 비롯해 '홍영장', '군산정보짬뽕', '중화반점', '중화반점1968', '민규짬뽕', '중화짬뽕', '오징어짬뽕', '개복동중식당' 등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중식당에서부터 MZ세대 취향에 맞는 현대식 짬뽕집까지 입점해 있어, 축제와 함께 군산의 미식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가 될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짬뽕축제는 먹거리존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까지 한층 다채롭게 준비했다"라며 "관광객들이 오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종합 미식관광 축제로서 미식관광도시 군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짬뽕존

0.5인분으로 다양하게 즐기는 짬뽕!

해물 짬뽕과 고기 짬뽕 중 고민할 필요 없이 원하는 짬뽕을 0.5인분씩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어요!

얼큰, 시원한 해물짬뽕

묵직한 국물의 고기짬뽕

먹거리존

여기 다 모였다! 색다른 중식 먹거리!

짬뽕빵

매운 닭국수

짬뽕부터 마라 소스를 곁들인 육전, 간소치킨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이색짬뽕존과 푸드트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짬뽕 레스토랑

어서와~ 짬뽕 레스토랑은 처음이지?

오직 2025 군산 짬뽕페스티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짬뽕 레스토랑!** 재즈풍 공연들과 함께 군산 짬뽕 즐기러 놀러 오세요!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에 이어 즐길거리까지 준비했다구!

대형 짬뽕 그릇에 소원을 넣어봐!

소원을 적은 불꽃공을 짬뽕 그릇에 채워 대형 짬뽕을 완성시켜보자!

첨가방 삼 형제와 대결하라!

첨가방 속 물그릇을 무사히 배달하고 리워드까지 챙기자!

제52회 고창 모양성제

고창 짬뽕바지다, 모양 짬뽕물들다

2025. 10. 29. (수) - 11. 02. (일)

고창읍성·꽃정원·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

개막식 10. 29. (수) 김민재 박지현 김태연	모양 나이트 10. 31. (금) 기리보이 박명수	MZ 페스타 11. 01. (토) 멜로망스 체리필터	폐막식 11. 02. (일) 황가람 최백호
--	---	--	---

· 주최/주관: 고창군 · 후원: 전북특별자치도